

수요가정예배순서

1.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2. 찬 송 가 365장 다같이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1. 마음 속에 근심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2.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네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3.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후렴】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3. 기 도 가족 중에서 기도자

4. 말 씀 창 12:10~13:4 인도자

5. 찬 송 가 325장 다같이
(예수가 함께 계시니)

1.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 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삼시다
2.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삼시다
3.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삼시다
4.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 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삼시다

【후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1. 믿음의 순도를 높이고 영적 체력을 단련하여 성숙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6. 합심기도

2. 코로나 19가 하루 빨리 종식되게 하셔서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도록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용기를 주시도록

3. 담임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 지혜충만함을 주시도록

7. 주기도문 다같이

영적 기근을 만났을 때(창12:10-13:4)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겪은 고난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안정된 가족들이 있는 고향을 등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곳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물론 그가 소유할 수 있었던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결과는 ‘기근’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이 기근은 아브라함의 신앙적 성숙을 위해 하나님이 치밀하게 고안하신 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불러내어 위대한 약속을 체결하시고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제 어디서든 든든히 붙잡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불멸의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붙잡기 보다는 현실의 기근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기근을 만나자 지금까지 익숙하게 지켜왔던 순종의 삶과 헌신의 제단 쌓기를 중단해 버립니다. 환경에 마음이 빼앗기자 그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에 풍요롭고 살기 좋은 땅이라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예상치 못한 기근을 만나자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약속이 땅에 기근이라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오늘 21세기를 살아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의 모습 속에 천착(穿鑿)되어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을 약속하시면, 본문의 표현을 빌려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감에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은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잠재적으로, 암묵적으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밋빛 미래가 열릴 것으로 믿어 버립니다. 그래서 “잘 되는 일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잘되는 일만 있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믿음을 단련하시고 천국 백성의 자격을 갖추게 하시기 위해 때때로 기근을 기획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에 있어서 ‘역경과 고난’은 믿음의 순도를 측정하는 테스트인 것입니다. 즉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신8: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들을 주리게 하고, 그 메마른 사막 한 가운데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 길에서 그들의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낮아진 상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려 주려고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믿고 순례의 행진을 이어온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붙들고 묵묵히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기근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기간은 믿음의 순도를 높이는 기간입니다. 영적체력을 단련하는 기간입니다. 믿음의 성숙의 길로 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불평하고 우울하게 보내기 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사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 19로 마음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 기간 하나님께서 나라를 단련하시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